

식도 재건술에서 대용식도의 종류에 따른 합병증의 임상적 고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박기진 · 문광덕 · 강정호 · 정원상 · 지행욱 · 김혁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6년 7월부터 1995년 6월까지 식도암 환자와 사고나 자살 목적의 부식제 섭취로 인한 식도 협착 등으로 인해 식도 재건술을 시행 받은 69례의 환자 중에서 대용식도로 대장을 사용하여 식도전절제술후 식도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와 위장을 사용하여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그리고 공장을 사용한 경우로 분류하여 각각의 술후 합병증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많이 사용되는 위장 및 공장 이 실제 대장보다 우수한가를 알아보려는 시도이다.

전체 환자의 성비는 남자가 52명 여자가 17명으로 약 3:1의 비를 보였으며 질환별로는 식도암에서는 남자에서 13배 가량 많았으나 양성 식도 협착에서는 각각 14명으로 남녀의 비가 1:1이었다. 전체적으로 위장을 대용식도로 이용한 경우가 39례로 가장 많았고 대장을 대용식도로 이용한 경우가 23례, 공장을 이용한 경우는 7례가 있었다. 식도암의 평균 연령은 남자가 58.3세 여자가 51.2세 양성 식도협착은 남자가 35.5세 여자는 46.8세였다.

합병증으로는 대용식도의 피사가 대장의 경우는 4례로 17.4%였고 위장과 공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중 대장을 사용하여 식도재건술을 시행한 한명의 환자에서 대용식도의 피사가 있는 후 폐혈증과 복합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중격동염은 대장을 사용하여 식도 재건을 한 경우에 2례로 8.7%의 비율을 보였고 위장을 사용했던 수술에서 1례로 2.6%의 비율을 보였다. 문합부 누출은 대장으로 2례로 8.7%였고 위장을 사용했던 경우 1례로 2.6%였다. 호흡기 합병증으로는 대장에서 3례 (13.0%) 위장에서 5례 (12.8%)의 발생을 보였고 창상 감염은 대장에서 2례 (8.7%) 위장을 사용한 경우에 2례 (5.1%), 그리고 공장의 경우 1례 (14.3%)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술후 협착도 대장에서 1례로 4.3%였으며, 위장의 경우에 3례로 7.7%의 발생 빈도를 보였다. 90년대 이전에 본 교실에서는 주로 대용식도로 대장을 이용했으나 그 이후로는 주로 위장과 공장을 이용하고 있다.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 중에 피사나 중격동염 그리고 문합부 누출 등의 중한 합병증이 대장을 사용한 경우에서 위장나 공장을 이용한 경우에서보다 높은 발생 빈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